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2. 5.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 발 의 자: 김귀화 의원 외 4인(홍복조, 이영빈, 박종길, 이신자)
- 발의일자: 2020. 1. 13.
- 회부일자: 2020. 1. 23.
- 상정 및 의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0. 2. 5.)

2.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 다.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 7조)
-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실태조사
(안 제8조, 안 제9조)
- 마. 포상(안 제10조)

4.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박성우)

- 동 조례안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달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달서구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 환경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그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도록(안 제8조 및 안 제5조)하면서 이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종합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안 제6조)토록 함은 물론, 그 실행(실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안 제9조)하고 있음.
- 현재 동 조례안과 같은 취지의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지자체가 210여 곳 이르는 점, 또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상위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 제정에 대해 이견은 없으며, 각 세부 조문별로 볼 때도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 제정 취지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있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사업(안 제8조)을 나열하면서,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조제4호)”도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개인에게 각종 수당이라든지 교육연수비와 같은 보조금을 별도 지원할 경우, 이는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